

광주서 '연극의 향연' 열린다

춘천·부산·전주·광주 등 6개 도시 대표 극단 참여 7일까지 씨어터 연바람·예술극장 통서 '소극장열전'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극단 살림에 소극장까지 운영하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되지는 여건에서도 지역 극단들의 창작과 연기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구미, 춘천, 부산, 대구, 전주 그리고 광주. 6개 지역에서 극단과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표 극단들이 함께 펼치는 '제 11회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소극장열전은 '월화수목금토일 여가, 연극이 있다'를 주제로 6개 도시를 대표하는 극단들이 준비한 무대가 상연된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소극장열전은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씨어터 연바람과 예술극장 통서에서 만날 수 있다.

첫 작품은 푸른연극마을의 '노인과 바다' (1일 오후 7시 30분·씨어터 연바람)다. 헤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연극적 상상력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이당금이 예술감독을 맡은 작품은 어부 산티아고가 낚시 줄에 걸려든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오성완, 박성순, 오새희 3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구미 극단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타이피스트' (2일 오후 7시 30분·예술극장 통)는 머레이 쉬스갈의 명작 2인극으로 타이피스트로 취직한 폴과 실비아 두 남녀의 40년 간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도시민들의 꿈과 희망,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연극이다. 황운동이 연출을 맡았으며 정성호, 위유정이 출연한다.

춘천 극단 도모는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법' (3일 오후 7시 30분·씨어터 연바람)을 준비했다. 충격적이면서 인상적인 작품성으로 주목받은 작품으로 이번 광주공연은 원대 남성배우 2인극 형태를 벗어나 여성배우를 캐스팅했다. 백과사전을 파는 영업사원 숙희가 만화가 미진의 집을 찾아,

미진이 식사를 제안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다.

4번째 연극은 부산 공연예술창작집단 아니연극의 '해안도로' (4일 오후 7시 30분·예술극장 통)다. 탄크레드 도르스트의 작품을 실험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남매와 그들의 공간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 공간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맞서는 남매의 이야기를 그렸다. 전상배가 연출을 황미애, 이동희, 정준영이 출연한다.

대구 극단 한울임의 '못생긴 남자' (5일 오후 7시 30분·씨어터 연바람)는 외모 콤플렉스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물질화, 대량생산체제는 현대 사회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존재론을 가감 없이 그려낸 작품이다. 이원희, 이지영, 석민호, 정성태, 남준우, 김재화 등 젊은 연출가와 배우들이 중심이 돼 신선한 무대를 선보인다.

전주 극단 빈칸은 선옥현 작가의 '카모마일과 비빔면' (6일 오후 6시·예술극장 통)으로 광주를 찾는다. 작가지망생이자 카페의 사장인 관우가 가게로 찾아온 낯선 여자에게 비빔면을 대접하면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박찬이 연출, 심완준과 양상아가 출연한다.

마지막 연극은 특별초청 공연으로 서울 극단 공상집단 똥똥지가 1988년 붕괴된 공주의 희락탄광을 배경으로 한 '후산부, 동구씨' (7일 오후 5시·씨어터 연바람)를 공연한다.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4명의 광부를 통해 인간의 생존 본능, 숭고한 인간애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소극장 열전은 1일 오후 6시 씨어터 연바람에서 개막식을 갖고 7일 간의 여정을 시작하며,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주제 토론회 등도 마련된다. 예매 및 공연 문의 062-226-2446.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인과 바다' 공연 모습.



'못생긴 남자들' 공연 모습.

'한산' 개봉 5일만에 관객수 200만명 돌파 '탑건2'는 700만명 넘어



백해일·변요한 주연의 '한산: 용의 출현' (사진)이 개봉 다섯째인 31일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한산'은 전날 오전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추가로 동원했다. '한산'은 김한민 감독이 연출하는 이순신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다. 톰 크루즈 주연의 항공액션 '탑건: 매버릭' ('탑건2')은 이날 누적 관객수 700만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SBS 추석 특집 김호중 단독쇼 '한가위 판타지야' 편성



SBS는 추석 연휴에 가수 김호중(사진)의 첫 TV 단독 쇼를 선보인다. SBS는 다음 달 30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야'를 열고, 추석 연휴 중 TV에 공연 영상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호중은 공연에서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김호중과 듀엣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SBS 공식 홈페이지에 김호중의 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커버한 영상을 올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김호중의 무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받는다. /연합뉴스

전남대 '삼한시귀감' 광주시 유형문화재 지정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장우권)이 소장하고 있는 '삼한시귀감' (三韓詩歸鑑)이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삼한시귀감'은 고려말 조운흥(趙運, 1332~1404)이 최해(崔海, 1287~1340)의 '동인지문오칠' (同人之女五七)에서 빼어난 시를 뽑아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형태의 시선집(詩選集)이며 시비평집이다.

초간본(初刊本)은 현재 전하지 않고 1566년(명종 21) 순천(順天) 중간본(重刊本)도 국내외 단 2곳에 남아 있는 희귀본이다.

전남대 도서관 소장본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판본으로 중간본과 글씨체는 같으나 모양이 다르며 소장본의 오자(誤字)가 중간본에서는



상당수 수정되어 있다. 광주시는 이 책이 조선 초기 출판문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남아 있지 않다고 알려진 초간본일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또 문화재 지정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우권 도서관장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삼한시귀감'과 함께 기존에 지정된 '도은선생집'을 전시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문헌 전시 등을 통해 관련 학문 연구자 및 지역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재 클래식스' 시리즈 '파브르 곤충기' 출간

사단법인 올재는 '올재 클래식스' 43차 시리즈로 '파브르 곤충기'를 29일 출간했다.

한국 생화학의 개척자이자 고전 번역가인 고(故) 이근배와 '여린 왕자'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불문학자 고(故) 안응렬이 12년간 함께 번역한 것이다.

'파브르 곤충기'는 프랑스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가 42년간 집필한 곤충 연구서다. 파브르는 56세에 1권을 낸 후 30년에 걸쳐 총 10권을 냈다.

올재는 완역본을 총 5권 분량의 복간본으로 출간한다. 기존 완역본과 내용은 같고, '곤충의 본능과 습성에 관한 연구'라는 부제가 추가됐다. 올재는 각각 5000권을 발행해 4000권은 2900원씩 세트(1만4500원)로만 판매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